

전북 '장수 동촌리 고분군' 사적 된다

5~6세기 축조 추정 백두대간 서쪽지역 최대 가야 무덤군 지름 20~30m 중대형 고총 83기 분포...편자·말뚝 등 발굴도

백두대간 서쪽 지역 최대 가야 무덤떼로 꼽히는 '장수 동촌리 고분군'이 사적이 된 다.

문화재청은 5세기 초반부터 6세기 초반 사이에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 83기가 분포한 '장수 동촌리 고분군'을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지난해 3월 호남 지역 가야 유적으로는 최초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사적이 된 데 이어 장수 동촌리 고분군도 사적으로 지정 예고되면서 호남 가야 유적 조사·정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장수 동촌리 고분군은 장수군 장수읍 마봉산(해발 723.9m)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와 능선을 따라 지름 20~30m 내외의 중대형 고총을 포함한 83기가 분포된 고분군으로, 가야세력의 수장층 고분군으로 추정된다.

전북 지역 가야고분군 중 단일유적으로 는 최대 규모의 가야 고분군으로, 지난 2003년 발굴조사가 처음 진행된 뒤 지난 해까지 6차례 조사가 이뤄졌다. 고분 중에는 지름 20~30m에 달하는 중대형 무덤도 있다.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竪穴式石槨墓·구

덩식 돌덧널무덤)에서 가야계 토기와 백제계 토기가 함께 발견돼 가야와 백제 사이 역학관계를 밝힐 수 있는 유적이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봉토 아래에 주곽(主槨· 으뜸뫼)과 부곽(副槨·뫼덧뫼)을 함께 둔 점이 가야 고분 특성으로 분석되지만, 고분 평면이 타원형인 1호분은 무덤 주변에 돌을 쌓은 시설물인 호석(護石)이 없어 영남 지역 가야 고분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표면과 생토면을 잘 고른 뒤 1m 내외의 높이로 흙을 쌓고 되파기를 해 무덤을 조성했는데, 이러한 기법은 마한 분묘 영향을 받은 독자적 요소로 파악됐다.

2015년에는 가야계 고분 중 최초로 정이 박힌 편자(말뚝굽에 덧대어 붙이는 쇠

조각)와 말뚝이 발견됐고, 2017년 조사에서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 합쳐 옥전 고분군 같은 가야 수장층 무덤에서만 출토된 재갈이 나왔다.

또 동근고리지루칼, 은제 귀걸이, 휴대용 화살통 등 가야계 고분에서 나타난 유물과 비슷한 부장품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장수 동촌리 고분군은 그동안 백제권으로 인식된 장수 지역에 가야 세력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중요한 유적이자 고대 사회상을 밝혀줄 가치 있는 문화재"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복지재단, 사회서비스 종사자 신분증 제작·배포

전남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분증 제작·배포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령도를 제고시키는 의미도 포함된다.

전남지역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신분증 패용 후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전남복지재단 관계자는 "전남지역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제공인력들이 소속감을 갖고 안정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전남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31억원을 투입해 아동, 노인, 장애인, 산모 등 2만여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건강증진, 가사간병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군산시, 500만 그루 나무심기 '미래 숲' 조성

군산시가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을 펼친다.

오는 2023까지 500만 그루 나무를 심어 미래 세대에 물려줄 '미래의 숲'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올해의 경우 도시림 조성과 가로변 꽃식재, 시민 헌수 등 나무 심기 분위기 조성에 주력한다는 게 군산시 설명이다.

당장, 상반기에만 공공부문에서 25만 3000그루를 식재했고 민간 부문도 개발사업과 시민 헌수 등으로 4만 6000그루를 심어 올해 목표인 37만 5000그루 중 80% (29만 9000그루)를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숲,

가로수 조성 등 23개 사업을 통해 22만 6000그루를 심었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도 한몫을 했다. 시민들은 수송동 장미 특화거리 등 4개 사업에서 주도적으로 참여, 9026그루를 식재했다.<사진>

군산시는 또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꽃씨 59kg과 화분 372개를 지원하는 한편, 시 전역에 야생화 205kg을 파종했다.

시는 하반기에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에 도시재생숲을 조성하고 '시민 헌수 장미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2차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고창 복분자클러스터 야외물놀이장 무료 개방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클러스터의 야외 물놀이장(사진)이 2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문을 연다.

물놀이장은 유아용과 성인용 에어풀장, 에어 슬라이드 등의 물놀이 시설, 샤워장 등을 갖췄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고창군은 용수 교체와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요원을 상시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새만금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개발해야"

김학준 교수, 수익창출 위해 카지노 시설 필요성 주장

새만금청 의도적 해석 지적도

새만금 카지노 유치 주장이 또 나왔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개최한 '복합리조트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한국관광학회학회 부회장인 김학준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복합리조트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카지노 시설이 필요하다"며 '카지노형 복합리조트'를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카지노형 복합리조트는 호텔, 쇼핑몰, 대형회의장, 카지노, 스포츠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리조트에서 카지노 시설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새만금개발청은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다만 카지노의 병폐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출입 장벽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

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김 교수를 초청해 해당 주장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교수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정부 또는 개발청의 공식 입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이 '해양수산부의 새만금 일대 해양레저관광거점구역 선정계획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카지노는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45명은 지난 2016년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빼대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정읍시,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정읍시가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한다.

23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5억여 원을 들여 1.3km 구간에 걸쳐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구간은 ▲연지동 실내체육관~여성문화회관(195m) ▲시기동 정읍체육관~대성하이퍼마켓(510m) ▲상교동 용흥

교차로~도솔암 방향(190m) ▲내장상동 명동합동연육·생고을교회(190m) 등이다.

정읍시는 현재 48% 수준인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투자를 꾸준히 늘릴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

익산시의회, 日 수출제한 철회 요구 결의안 채택

익산시의회는 지난19일 연 임시회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익산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정면 배치되며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산시의회는 시민에게도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 오르고 있다"면서 "일본 여행과 일본 상품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j@

고창학원농장서 100일간의 꽃잔치 열린다

해바라기·코스모스·메밀꽃 등 개화시기 조정 꽃밭 가꾸

청보리밭으로 유명한 고창 학원농장이 오색 옷을 입고 변신한다.

이른바 10월 말까지 펼쳐지는 '100일간의 꽃잔치'로, 해바라기·코스모스·백일홍·메밀꽃이 20만평의 드넓은 대지를 뒤덮는다.

개화 시기를 구역별로 조정, 개화 절정기가 보름 정도인 해바라기와 하얀 메밀꽃의 장관 뿐 아니라 피고지고를 반복하

는 백일홍과 코스모스까지 100일 동안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농장측 설명이다.

황토 구름을 따라 흰 소금을 흙뿌린 듯한 이 메밀꽃밭은 영화 '웰컴투 동막골'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꽃잔치 기간에 농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광활한 대지에 만개한 꽃을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